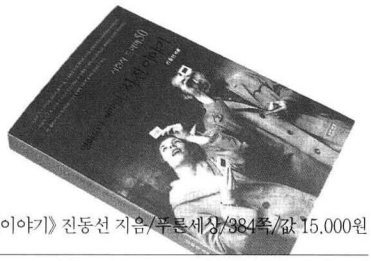
사진의 아픔과 절망, 기쁨을 담아낸 한 편의 드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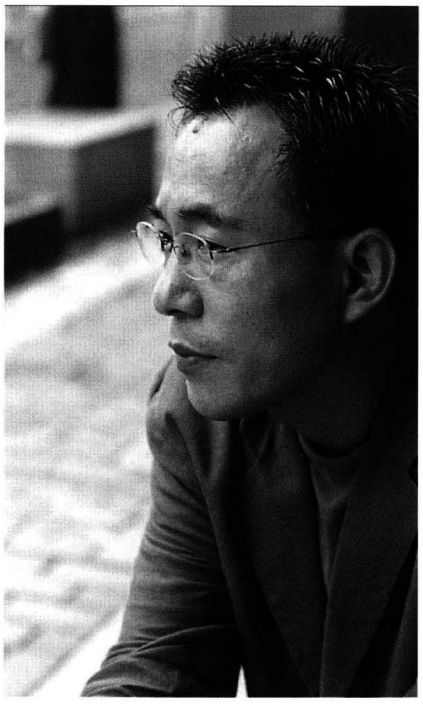
《영화보다 재미있는 사진이야기》 진동선 지음/푸른세상/384쪽/값 15,000원

《영화보다 재미있는 사진이야기》를 쓴 진동선 씨(45)는 소설과 같은 사진 역사책을 쓰고 싶었다고 말한다. '과정' 보다 '결과' 를 중시하는 기존 역사서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고, 사람들의 추억을 담은 '사진' 의 역사가 얼마나 다양한 재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리고 싶기도 했다.

"저는 기술의 역사 절반과 표현의 역사 절반이 사진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기술' 이 개입되기 때문에 사진에는 권력성이 존재하죠. 이 권력성을 따라가다 보면 다른 예술과는 다르게 사건과 스토리가 많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카메라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술술 풀어낸다. '사진으로 돈 번 사람과 쫄딱 망한 사람', '법정에 섰던 사진' 이야기는 모두 사실에 근거하지만 지어낸 이야기만큼 극적이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작가가 각색한 사진가들의 삶에는 각각 장르가 있다. 서정적인 사진으로 인정받았던 으젠느 앗제의 삶은 다큐멘터리와 같고, 사진의 자율성을 극대화했던 듀안 마이클의 삶은 개성있는 뮤직비디오 한 편을 본 것 같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잘사는 동네 아이들은 사진기를 갖고 있는데 저는 그걸 갖지 못한 거예요. 저는 다른 친구들과 단체사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나는 독사진을 찍어 그 안에 내 아이덴티티를 담아내고 싶은데 그걸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사진이 가진 자, 못 가진 자를 나누는 무기와 같다고 생각했죠."



아픈 사건으로 사진을 처음 만나게 된 그는 현재 사진비평가, 교수, 현대사진연구소 소장이라는 다양한 직함을 갖고 사진을 바라본다. 그가 말하는 사진은 '시대의 아들' 이다. 그래서 그는 오늘 찍지 않으면 안 되는 사진을 찍는 것을 진정한 의미의 '사진촬영' 이라고 말한다. 서양 사진사를 쓰긴 했지만 한국 사진사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깊은 그는 그동안 한국 땅에서 사진이 '예술' 이 아닌 단순 '기술' 로 인식됐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한다. 사진 전시를 하고 싶다는 화랑측 문의가 늘어나고, 한국 사진작가들의 국제 교류전이 활발해지는 현상이 반갑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쉬운 점도 있죠. 한국 사진역사가 120년이 되었는데 그 긴 역사 속에서 제집 하나 갖지 못했거든요. 그동안 사진을 찍는 일에만 급급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는 사진의 역사에서 '로버트 프랭크' 를 최고의 작가로 꼽는다. "사진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담긴 철학 속에 들어와 있다"고 말한 그의 사진관에 많은 공감을 했기 때문이다. 삶 앞에서 노출, 구도, 정확성 같은 것은 무의미해진다고 말한 그의 철학은 날카로운 비평을 해야만 하는 진동선 씨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사진은 단순한 기계적 산물이 아니다.

"사진은 '거울과 창' 입니다. 그것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자 세상을 비추는 창이 되는 것이죠. 결국 카메라는 내 눈의 연장이고 내가 세상과 만나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가 완성한 사진의 역사는 이처럼 카메라를 사이에 두고 세상과 사람들이 만났던 흔적이다. 세계 사진사 160년의 애환과 좌절, 그리고 희망의 자취들을 담은 저자는 찍히는 순간 역사로 남는다는 사진을 또 다른 역사로 남긴다.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